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나는 복합동사 표현의 오류분석

이 희 정*

차례

- I. 들어가기
- II. 일·한 양국어간의 복합동사의 대응패턴
- III.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 작문에 나타나는 오류
- IV. 맺으며

I. 들어가기

초보단계의 일본어 학습자가 일본어를 학습할 때, 텍스트에 나타나는 동사의 대부분은 단순동사이지만, 중·고급단계에 진입하면서 눈에 띄게 많이 등장하는 복합동사 표현으로 인해 고생해야 하는 게 일본어 교육의 현실이다. 이것은 일본어에 있어서의 동사와 동사가 결합한 복합동사에 대해 학습할 기회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고급수준의 일본어 학습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에 초래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므로, 일본어 교육의 입장에서 복합동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야 할 지에 대해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나는 복합동사 표현에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나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일본어 복합동사의 연구에는 어구성·형태론의 관점에서 고찰한 것으로서 武部良明(1953), 宮島達夫(1972), 長嶋善郎(1976)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애스펙트(Aspect)의 형식을 통해서 고찰한 金田一春彦(1950), 寺村秀夫(1984) 등이 있다. 이 중 寺村秀夫의 견해¹⁾는 일본어 복합동사에 관해 체계화된 분류를 했다는 점에서 이후의 관련 연구에 상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의 하나가 永井鐵郎(1996)의 연구인데, 그는 寺村의 분류를 기초로 하여,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 교육의 관점에서 복합동사 지도에 관한 방법론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寺村의 연구에 대한 실천적 연구라 볼 수 있다.²⁾ 또한, 개별적인 복합동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로서 姫野昌子(1975, 1976 등), 李暉洙(1993, 1994 등)의 논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하, 이들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면서, 일본어 학습자의 작문을 토대로 복합동사 표현의 오류를 분석해보고,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에 대한 복합동사 지도에 응용될 수 있도록 작문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일·한 양국어간의 복합동사의 대응패턴

일·한 양국어에 있어서 복합동사의 결합 형태는 「동사+동사」 「명사+동사」 「형용사+동사」 「부사+동사」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동사+동사」 결합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전항성분과 후항성분의 의미관계에 대하여 寺村의 분류³⁾를 토대로 양국어의 복합동사를 분류해보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유형	일본어	한국어
I型 (自立+自立)	「泣き叫ぶ・飛び跳ねる・呼び入れる・殴り殺す」 따위.	「때려죽이다·살아남다·뛰기시작하다·오가다」 따위.
II型 (自立+付屬)	「泣き出す・編み上げる・話し合う・投げつける」 따위.	「먹어보다·떠들어대다·죽어버리다·쏟아내다」 따위.
III型 (付屬+自立)	「差し出す・打ち立てる・振り向く・引き返す」 따위.	「떠내려가다·내던지다·넘겨쓰다」 따위.
IV型 (付屬+付屬)	「かえりみる・引越す・見つける・拂い下げる」 따위.	「돌아가다(「死ぬ」の意)·넘어가다(「倒れる」の意)」 따위.

[표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어의 경우는 「동사의 연용형+동사」의 결합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한국어의 경우에는 「동사의 어간+연결어미(아·이·기·ㄹ)+동사」의 결합을 보이고 있다.

이에 참고로 村上春樹의 소설 『ノルウェイの森』와 한역본 그리고 영역본의 몇몇 대응례를 인용해보기로 한다.⁴⁾

- ① 夏休みのあいだ大學が機動隊の出動を要請し、機動隊はバリケードを叩きつぶし、中に籠もっていた學生を全員逮捕した。

[한국어역] 여름방학 동안에 대학이 기동대의 출동을 요청하여, 기동대는 바리케이드를 때려부수고 안에서 농성 중이던 학생을 전원 체포했다.

[영어역] Over summer break the university called in the riot police, who broke down the students holed up inside.

- ② 僕は靴の先で蟬の死骸や松ぼっくりを轉がしたり、松の枝のあいだから見える空を見上げたりしていた。

[한국어역] 나는 구두코로 매미의 죽음이나 솔방울을 굴리기도 하고, 소나무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올려보기도 하였다.

[영어역] I poked among the dead cicadas and pine cones with the tip of my shoe, then looked up at the sky through the pine branches.

- ③ そして本を何度も読み返し、ときどき目を閉じて本の香りを胸に吹き込んだ。

[한국어역] 그리고 책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으며, 때때로 눈을 감고 책의 향기를 가슴으로 들이마시었다.

[영어역] I'd just keep my nose to my own books, read them time and again, close my eyes, and inhale their essence.

위의 예①~③을 통해서, 일본어 「동사+동사」 결합의 복합동사는 한국어의 경우에서도 「동사+동사」 결합의 형태로 대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어의 구조와 달리, 일·한 양언어에는 공통되는 복합어 패턴이 많으며, 그만큼 일본어와 한국어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언어간의 대조·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한 양국어에 있어서의 「동사+동사」의 결합표현에 대한 유형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본어의 「동사+동사」 결합이 한국어의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에 대응되는지 등을 고찰한다. 우선, 이러한 일본어의 동사결합에 의한 표현이 한국어에 있어서도 「동사+동사」의 결합형태로 대응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따라 대략적인 분류

를 해보기로 한다.

1. 한국어로의 「동사+동사」 결합이 대응 가능한 경우

여기에서 「대응 가능한 경우」란 대응하는 한국어에 있어서도 「동사+동사」 결합으로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1-① 전·후향동사가 일본어와 동순(同順)으로 대응될 때

일본어와 한국어가 동순(同順)으로 대응되는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 (1) 夜9時ごろになって急に雨が降り出した。
밤 9시경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 (2) 北朝鮮の經濟は、開放政策へ押し進めるべきだ。
북한 경제는 개방정책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 (3) 西洋文化を受け入れる。
서양문화를 받아들인다.
- (4) 新型の機械を作り出した。
신형 기계를 만들어냈다.
- (5) 雪が卍巴と降り頻った。
눈이 어지럽게 내리퍼부었다.

위의 예를 보면, 앞에서 필자가 분류한 I型(예2, 예3)의 경우와 II型(예1, 예4, 예5)의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한국어의 경우에는 전향동사와 후향동사의 사이에 연결어미 「기·고·아·어·∅」를 매개로 하여 결합된다.

1-② 전·후향동사가 일본어와 역순(逆順)으로 대응될 때

이것은 일본어의 전·후향동사간의 결합형태가 한국어에서는 역순(逆順)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즉, 일본어의 「전향동사+후향동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이 전·후향동사가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에 이에 해당하는 예를 몇몇 들어본다.

- (6) 私を見上げて挨拶をした。
저를 올려다보고 인사를 했다.
- (7) ミシンとテレビを置き換えた。
재봉틀과 텔레비전을 바꿔놓았다.
- (8) 彼女は新しい服に着替えた。
그 여자는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 (9) 學長は校舎を見回っている。
학장은 교사를 돌아보고 있다.
- (10) 彼は東アジアの研究の第一歩を踏み出した。
그는 동아시아 연구의 첫발을 내디뎠다.

위의 예를 보면, 이러한 예들은 일본어의 「전향동사+후향동사」의 대응표현이 한국어에서는 전·후향동사가 반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예(10)의 후향동사 「-出す」는 한국어의 전향 「내-」에 상당하지만, 앞의 예(4)에서는 후향 「-내다」에 대응되는 예이다. 이 「-出す」에 관해, 다음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 (11) 彼は、窓から首を突き出した。
그는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 (12) 彼を、外へ突き出した。
그를 밖으로 밀어냈다.

위의 「突き出す」(내밀다, 밀어내다)의 경우와 같이, 동일어라 하더라도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에서는 복수의 복합동사에 대응되는 경우가 있다. 예(11)은 대응이 역순(逆順)인데 반해, 예(12)는 동순(同順)으로 대응되는 경우이다.

또한, 일본어의 「전향동사+후향동사」의 한국어 대응표현에서는 일본어의 후향동사에 대응하는 부분이 부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에 관해서는 「부사+일본어의 전향동사에 해당하는 동사」의 항에서 다루기로 한다.

2. 한국어로의 「동사+동사」 결합이 대응 불가능한 경우

여기에서 「대응 불가능한 경우」란, 한국어의 「동사+동사」 결합으로서 대응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2-① 한국어의 「한자어+하다」 「한자어+시키다」에 대응될 때

일본어의 「동사+동사」 결합의 복합동사가 한국어 「한자어+하다」 또는 「한자어+시키다」에 대응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 (13) 彼女は参考人として法廷に立ち會った.
그 여자는 참고인으로서 법정에 입회(立會)했다.
- (14) 海外郵便物も、郵便局で取り扱っている.
해외우편물도 우체국에서 취급(取扱)하고 있다.
- (15) あの子は、小學校2年生なのに、ラジオを組み立てることができる。
저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라디오를 조립(組立)할 수 있다.
- (16) 銀行から小切手で50万円を引き出した.
은행에서 수표로 50만원을 인출(引出)했다.
- (17) 旧時代の因習は打ち破るべきだと思う。
구시대의 인습은 타파(打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8) 彼は、争中に多くの人命を救い出した.
그는 전쟁중에 많은 인명을 구출(救出)했다.
- (19) 楽しかった高校時代のことを思い浮かべた.
즐거웠던 고교 시절을 회상(回想)했다.

위의(13)~(19)의 예는 모두 한국어의 「한자어+하다」에 대응하는 예이다. 예(13)~(18)은 같은 한자표기(예: 立ち會う→立會하다)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예(19)의 경우에는 다른 한자표기에 대응하는 예이다. 이들의 예(17)~(19)의 경우, 한국어의 「打破하다」「구출하다」「회상하다」는 각각 일본어의 「打破する・打ち破る」「救出する・救い出す」「回想する・思い浮かべる」와 같은 여러 대응관계를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일본어의 「동사+동사」 결합이 한국어의 「한자어+하다」에 대응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들 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예도 볼 수 있다.

- (20) 一部の人が、民心を掻き亂した。
 일부의 사람이 민심을 교란(攪亂)시켰다.
- (21) リンカーンは、奴隷を解き放した。
 링컨은 노예를 해방(解放)시켰다.

예(20)(21)은 일본어 복합동사가 한국어의 「한자어+시키다」에 대응되는 경우이다. 한국어의 「攪亂시키다」 「解放시키다」는 각각 일본어의 「攪亂する」와 「掻き亂す」, 「解放する」와 「解き放す」라는 대응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위의 (17)~(19)와도 공통될 것이다.

여기에서 2-①에 해당하는 복합동사의 경우, 예(17)(18)(21)과 같은 대응관계를 가진 경우가 많은데, 이는 양국어 공히 유의어(類義語) 표현인 고유어 복합동사와 2차 한어동사의 대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복합동사와 한어동사는 유의어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石井正彦는 일본어에 있어서 대응관계에 있는 한어동사와 복합동사를 의미·용법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⁵⁾

- ① 兩者の意味・用法がほぼ重なると考えられるもの
- ② 漢語サ変動詞の意味・用法の一部と複合動詞の意味・用法とが重なると考えられるもの
- ③ 両者が共通の意味・用法を用いながらも、それぞれ独自の意味・用法を有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もの
- ④ 複合動詞の意味・用法の一部と漢語サ変動詞の意味・用法とが重なると考えられるもの
- ⑤ 両者に同一の意味・用法がないと考えられるもの

石井는 이 중에서도 ①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한어동사가 복합동사에 비해 의미를 나타내는 범위가 좁으며, 그만큼 엄밀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⁶⁾

2-② 한국어의 「부사+일본어의 전향동사에 해당하는 동사」에 대응될 때

일본어의 「동사+동사」 결합의 복합동사는, 한국어의 대응표현에 있어서 일본어의 후향동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사의 형태로 나타나고, 일본어의 전향동사에 해당하는 동사가 뒤에 오는 경우를 말한다. 즉, 「부사+일본어의 전향동사에 해당하는 동사」의 형태에 대응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부사는 뒤에 오는 동사를 수식하며, 때로는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22) 私の友だちのうち、お酒を飲みすぎて病氣になった人もいる。

내 친구 중에 술을 너무 마셔서 병에 걸린 사람도 있다.

(23) 私は村上春樹の「羊をめぐる冒険」という本を讀み終わった。

나는 무라카미하루키의 「羊をめぐる冒険」이라는 책을 다 읽었다.

(24) マラソン選手は走り続けた。

마라톤선수는 줄곧 달렸다.

(25) 彼らは愛し合っている。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

예(22)~(25)의 복합동사(모두 II型)의 의미는, 한국어로는 부사 「너무」 「다」 「줄곧」 「서로」가 「마시다」 「읽다」 「달리다」 「사랑하다」 등을 수식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예에서 보면, 대부분이 강조나 종료, 완수 등을 나타내는데⁷⁾, 이 경우에 한국어의 부사와 일본어의 후향동사는 주어가 강한 의미표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한국어는 일본어와 문법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며, 같은 어순으로 축어역(逐語譯)⁸⁾을 했을 경우라도 그 번역문이 그대로 일본어로서 통용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오히려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보다 더 일본어다운 표현을 습득하는데는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③ 한국어의 단순동사에 대응될 때

이것은 일본어의 「동사+동사」 결합의 복합동사가 한국어로는 단순동사에 대응하는 경우를 말한다.

- (26) 思い立ったら、すぐ実行にうつす。
 생각나면, 곧바로 실행에 옮긴다.
- (27) 事實解明を回避したことが、この事件を引き起こした。
 사실규명을 회피한 것이 이 사건을 일으켰다.
- (28) 壁にスイッチを取りつけた。
 벽에 스위치를 달았다.
- (29) 古い建物を取り壊した。
 낡은 건물을 헐었다.

이들 일본어의 경우는 II형·III형의 복합동사, 즉, 전향동사 또는 후향동사가 부가적인 성분으로서 「-立つ·引き-·取り-」가 각각 중심적인 성분을 수식하거나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로는 중심적 성분인 「思い-·-起こす·-つける·-壊す」에 해당하는 단순동사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일본어의 경우에도 이들 문장표현의 경우에는 중심적인 성분에 해당하는 「思う·起こす·つける·壊す」라는 하나의 단순동사로도 표현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된다.

2-④ 그 밖의 표현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다음과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 (30) 絶対に間違いはないと言い切った。
 절대로 틀림없다고 단언했다.
- (31) 今日で、生徒の募集を締め切った。
 오늘로 학생의 모집을 마감했다.
- (32) 彼の家族は、今乞食に成り果てた。
 그의 가족은 지금 저지 신세가 되었다.
- (33) 今朝、朝刊新聞の廣告文をざっと読み下した。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광고문을 대충 훑어보았다.

위의 예(30)~(33)의 경우, 일본어에서는 복합동사의 형태이지만,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에서는 전향동사와 후향동사가 공히 본래의 의미를 잃고,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표현에

대응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술해온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기로 한다. 일본어의 「동사+동사」 결합의 복합동사의 형태적 특징을 토대로 의미상의 대응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2]와 같다. 일·한 양국어의 복합동사는 형태적·의미적으로 어떠한 대응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대응이 규칙적인 것과 불규칙적인 것의 대표적인 예를 다음의 [표2]에 제시한다.

(표2)

대응 여부	일본어 용례	대응 관계	한국어 용례
대응 가능한 경우	降り出す	기形	내리기 시작하다
	押し進める	고形	밀고 나가다
	生き残る	아形	살아남다
	殴り殺す	어形	때려죽이다
	降り頻る	ㅇ形	내리퍼붓다
대응 불가능한 경우	引き受ける	漢字語+하다	引受하다
	掻き亂す	漢字語+시키다	攪亂시키다
	読み終わる	부사+전향동사	다 읽다
	引き起こす	단순동사	일으키다
	締め切る	기타	마감하다

위의 [표2]는 일본어의 입장에 본 복합동사의 대응관계인데, 이 표에 있어서 대응 가능한 경우를 보면, 「作り出す」와 같이 전향동사 「作る」와 후향동사 「出す」에 해당하는 대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의 복합동사에 정확히 대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作る」와 「出す」는 한국어 「만들다」와 「내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作り出す」는 「만들어내다」에 대응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응 불가능한 경우를 보면, 일본어의 복합동사가 한국어 「한자어+하다」 「한자어+시키다」 「부사+일본어의 전향동사에 해당하는 동사」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동사와 동사의 결합표현에는 일·한 양국어에 있어서 대응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즉, 일본어의 동사와 동사의 결합표현은 한국어의 대응표현에 있어서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Ⅲ.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 작문에 나타나는 오류

여기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일·한 양국어에 있어서의 복합동사의 대응 유형을 토대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작문상의 오류를 분석하여, 일본어 교육의 관점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이 오류분석에 있어서는 2002년 8월에 일본어 연수를 위해 일본의 대학에 방문한 H대학의 일어일문학과 3학년생 15명의 작문을 이용하였다⁹⁾. 이하, 일본어 작문에 나타난 복합동사의 용례를 들면서, 오류 문항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1. 한국어로의 「동사+동사」 결합이 대응 가능한 경우의 오류

1-① 전·후향동사가 일본어와 동순(同順)으로 대응될 때
우선, 대응되는 작문의 예를 몇몇 들어본다.

(1) 쓰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일어질 수 있거든요.

[作文例] 書き始めれば, どうしても長くなるものがあるもの。

(2) 사장이 사원 한 사람을 복도로 불러냈다.

[作文例] 社長が社員の一人を廊下へ呼び出した。

(3) 그녀는 담당자한테 영수증을 받아들었다.

[作文例] 彼女は、係の人から領收書を受け取った。

위의 작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향동사와 후향동사가 일본어와 동순(同順)으로 대응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에 비해 오류가 현저히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 수는 적지만, 다음의 예와 같은 오류도 나타났다.

(4) 냉기가 방으로 흘러들었다.

[作文例] 冷気が部屋へ流れて入った。(流れ込んだ)

(5) 그녀는 그대로 아무 말도 없이 걷기 시작했다.

[作文例] 彼女は、そのまま何も言わずに先に立って歩いて始めた。(歩き始めた)

(6) 그를 밖으로 밀어냈다.

[作文例] 彼を外へ押して出した。(突き出した)

이들 작문의 경우에, 예(4)의 작문 「流れて入る」은 「流れ込む」의 오류이며, 예(5)(6)의 「歩いて始める」「押して出す」도 「歩き始める」「突き出す」를 써야하는 경우이다. 이들 오류는 한국어의 전향동사의 연결어미 「아·어」「기」에 일본어의 「て」를 대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들 오류는 전향동사·후향동사의 본동사를 그대로 직역한데서 생긴 오류라고 생각된다.

1-② 전·후향동사가 일본어와 역순(逆順)으로 대응될 때

이 유형에 해당되는 예는 앞에서 검토한 동순(同順)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오류가 많아진다. 그 예들을 보기로 한다.

(7) 오후 3시에 떠나기로 하고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作文例] 午後3時に立つことにして、外出着に替えて着ていた。(着替えて)

(8) 그녀는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개처럼 끽끽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作文例] 彼女は歩きながら空を上げてみて、犬みたいにくんと匂いをかいだ。(見上げて)

(9) 그는 동아시아 연구의 첫발을 내디뎠다.

[作文例] 彼は、東アジア研究の第一歩を出して踏んだ。(踏み出した)

(10) 총리는 홋카이도 전역을 돌아보았다.

[作文例] 総理は、北海道全域を回って見た。(見回った)

(11) 우리는 아마노테센을 타고 나오코는 신주쿠에서 츄오센으로 바꿔 탔다.

[作文例] 我々は山手線に乗り、直子は新宿で中央線に換えて乗った。(乗り換えた)

위의 작문 용례(7)~(11)은, 「着替える」「見上げる」「踏み出す」「見回る」「乗り換える」의 오류이다. 이들 예는 모두 일본어의 동사결합의 형태와 한국어와는 역순(逆順)이 되는 경우인데, 어구성상의 차이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예(11)의 오류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본동사 「換える」「乗る」가 각각 한국어 「바꾸다」「타

다」에 대응하므로, 한국어의 어순에 따라 그대로 작문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앞에서 검토한 동순(同順)으로 대응하는 경우에 비해, 대응이 역순(逆順)인 경우의 오류가 상당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국어로의 「동사+동사」 결합이 대응 불가능한 경우의 오류

2-① 한국어의 「한자어+하다」 「한자어+시키다」에 대응될 때
우선, 몇몇 오류 용례를 보기로 한다.

(12) 그 여자는 참고인으로서 법정에 입회했다.

【作文例】 彼女は参考人として法廷に立會した。(立ち會った)

(13) 해외우편물도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다.

【作文例】 海外郵便物も、郵便局で取扱している。(取り扱って)

(14) 저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라디오를 조립할 수 있다.

【作文例】 あの子は、小學校3年生なのに、ラジオを組立することができる。
(組み立てる)

(15) 은행에서 수표로 50만엔을 인출했다.

【作文例】 銀行から小切手で50万円を引出した。(引き出した)

위의 (12)~(15)의 오류 용례는, 각각 「立ち會う」「取り扱う」「組み立てる」「引き出す」를 써야할 작문 문항일 것이다. 이러한 복합동사는 한국어의 「한자어+하다」에 대응하는 경우의 예로서, 이에 대응하는 「일본어의 漢語+する」의 형태로 번역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② 한국어의 「부사+일본어의 전향동사에 해당하는 동사」에 대응될 때

한국어의 「부사+(일본어의 전향동사에 해당하는) 동사」 표현이 일본어의 복합동사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다음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어 작문에서도 「부사+동사」의 형태로 작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6) 주문하고서 다 먹을 때까지 우리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作文例】注文してから全部食べるまで我々は一言も口をきかなかった。(食べ終わる)

(17)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줄곧 걸었다.

【作文例】彼女は、しばらく黙って續けて歩いた。(歩き續けた)

(18) 어제 술을 너무 마셔서 늦잠을 잤기 때문에, 수업에 늦었다.

【作文例】昨日、お酒をあんまりたくさん飲んで朝寝坊をしたので、授業に遅れてしまった。(飲みすぎて)

(19) 저희들은 그 문제를 서로 이야기했다.

【作文例】私たちは、その問題をお互いに話した。(話し合った)

예(16)(19)의 작문은, 약간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일본어로서 통용될 가능성이 있는 예들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작문 형태가 복합동사를 이용한 작문보다도 현저하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은 한국어를 축어역(逐語譯)한 문장에 가깝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어의 부사나 부사적인 어구와 의미상 대응하는 경우가 일본어의 복합동사 중에 어떠한 것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것이 명확히 밝혀진다고 하면, 일본어 작문에 있어서 모국어(한국어)의 간섭이 어떠한 경우에 일어나기 쉬운지를 알 수 있으며, 또한, 일본어 지도 및 학습에 효과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어 복합동사의 후향과 한국어를 대조한 生越直樹의 논고가 있다¹⁰⁾.

2-③ 한국어의 단순동사에 대응될 때

일본어 복합동사를 사용해야 할 곳에 단순동사로 작문하는 경향도 나타나는데, 몇몇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20) 학교측은 11시 이후의 여학생의 외출을 못하게 했다.

【作文例】學校側は、11時以後の女子學生の外出を止めた。(差し止めた)

(21) 저 아이는 슬그머니 돈을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었다.

【作文例】あの子は、そっとお金を受けてポケットに入れた。(受け取った)

예(20)(21)의 오류는 복합동사 「差し止める」「受け取る」의 중심적 성분 「止める」

「受ける」가 한국어의 단순동사 표현에 대응되는데서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예이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일본어 복합동사의 다양함에 비하여, 한국어의 복합동사는 그 수가 적다는 것에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앞의 2-②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오히려 「부사+동사」의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어, 이것 또한 모국어(한국어)의 간섭에 의한 오류의 하나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④ 그 밖의 표현

마지막으로, 그 밖의 다른 오류의 예를 살펴본다.

- (22) 주위 사람으로부터 추궁을 받아 항복했다.

[作文例] 回りの者から追窮を受けて音を上げた。(締め上げられて)

- (23) 생각나면 곧 실행에 옮긴다.

[作文例] 生覺したら、すぐ實行にうつす。(思い立ったら)

- (24) 그의 가족은 지금 거지 신세가 되어 버렸다.

[作文例] 彼の家族は、今乞食の身世になつてしまった。(に成り果てた)

이들 예(22)~(24)의 오류는 한국의 한자어를 일본어 작문에 그대로 사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들 오류의 대부분은, 한국인 학습자들 사이에 한자어로 표현하면, 거의 통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데서 생긴 것으로 생각되는 예들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오류도 볼 수 있다.

- (25) NHK에서는 방송기자의 모집을 오늘로 마감했다.

[作文例] NHKでは、放送記者の募集を今日で馬感した。(締め切った)

- (26) 우리들은 남은 술을 서쪽 출구의 지하에 있는 부랑자에게 주고 입장권을 사들고 그녀를 배웅했다.

[作文例] 僕らは残ったお酒を西口の地下にいる浮浪者にやり入場券を買って彼女を拝雄した。(見送った)

예(25)는 「締め切る」의 오류이며, 예(26)은 「見送る」의 오류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예(25)(26)은 한자어가 아니며, 한국어에 있어서 고유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의 한자음을

적당히 사용하여 작문한데서 생겨난 오류라고 생각한다.

IV. 맺으며

이상, 일본어와 한국어의 복합동사의 쓰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일본어 복합동사(동사와 동사의 결합)과 한국어역으로의 대응 패턴을 분류해보았다.

이에, 한국어로의 대응 가능한 경우와 대응 불가능한 경우를 정리해보면, 「作り出す」와 같이 전향동사「作る」와 후향동사「出す」가 대등하게 대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에 정확히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作る」「出す」는 한국어의 「만들다」와 「내다」에 대응하는 것으로, 「作り出す」는 「만들어내다」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응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대응 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작문상의 오류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한국어로의 「동사+동사」 결합의 대응이 가능한 경우에는,
 - ① 전향동사와 후향동사가 일본어와 동순(同順)으로 대응할 때는, 다른 유형에 비해 오류가 적었다.
 - ② 대응이 역순(逆順)일 때는, ①에 비해 현저히 오류가 많았다. 이들 오류는 일·한의 복합동사의 어구성상의 차이에서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 (2) 한국어로의 「동사+동사」 결합의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 ③ 일본어의 「동사+동사」 결합의 복합동사가 한국어의 「한자어+하다」에 대응하는 경우에, 「일본어의 漢語+する」의 형태로 번역하고자 한데서 나타난 오류가 상당히 많았다.
 - ④ 한국어의 「부사+동사」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일본어도 「부사+동사」의 형태로 작문한 오류가 많았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수의 오류의 원인이 한국인 학습자의 모국어의 간섭에 의해

생긴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되며, 이들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에 관해서는 금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注】

- 1) 寺村秀夫(1984)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くろしお出版.
 寺村은 일본어 복합동사의 「동사+동사」 결합형에 대해, 전항성분과 후항성분의 독립성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은 4종류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① 自立動詞+自立動詞(「呼び入れる・殴り殺す」 따위)
 ② 自立動詞+付屬動詞(「降り始める・思い切る」 따위)
 ③ 付屬動詞+自立動詞(「差し出す・引き返す」 따위)
 ④ 付屬動詞+付屬動詞(「話を切り上げる・(仲を)取り持つ」 따위)
- 2) 永井鐵郎(1996) 「日本語複合動詞の教育について」 『日本語教育』 88号、日本語教育學會.
 永井은 일본어 교육의 입장에서 복합동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動詞が單獨で使われるときの意味を保持しているか否かについては、なかなか基準を示しにくい
 が、少なくとも學習者に對しては明らかに本動詞と解釋できるもの(寺村の分類では、自立
 動詞+自立動詞)と、一語化しているもの(付屬動詞+付屬動詞)とがあるということは説明し
 ておくべきであろう。また、上記の②のような例(自立動詞+付屬動詞)では、後項動詞がある
 意味を持ち、前項動詞を入れ替えることによって様々な表現が可能になること、例えば「作り
 あげる・編みあげる・焼きあげる」の複合動詞もあるということを練習によって學習者に理解
 させることの方が重要であろうと思われる。なお、上記の③の例(付屬動詞+自立動詞)につ
 いては、③の例ほどの入れ替えの応用性がなく、④の「付屬動詞+付屬動詞」に近いものとして
 扱った方が良いように思う。
- 3) 注1과 같음.
- 4) 村上春樹(1991) 『ノルウェイの森(上・下)』講談社
 김남주譯(1993) 『노르웨이의 숲』한양출판
 Alfred Birnbaum(1997) “NORWEGIAN WOOD” Kodansha International
- 5) 石井正彦(1987) 「漢語サ變動詞と複合動詞」 『日本語學』 2月号、明治書院
- 6) 注5와 같음.
- 7) 李 暉洙(1994) 「日・韓兩言語における複合動詞の對照研究」 『廣島大學教育學部紀要』 43
- 8) 이 용어는 『大辭林』(松村明著、三省堂、1988年)의 「逐語譯」(原文にしたがって一語一語忠實
 に翻譯すること)의 의미에 기초한 용어임.
- 9) 이번 대상 학생들의 일본어 오기 전까지의 일본어 학습시간은 대략 900시간정도이며, 그 대부분 일
 본체제가 처음인 경우이었음.
- 10) 生越直樹(1984) 「日本語複合動詞と朝鮮語副詞・副詞的な語句との關係-日本語副詞指導の問
 題点-」 『日本語教育』 第52号

参考文献

- 石井正彦(1987)「漢語サ変動詞と複合動詞」『日本語學』2月号、明治書院
- 生越直樹(1984)「日本語複合動詞と朝鮮語副詞・副詞的な語句との關係-日本語副詞指導の問題点-」『日本語教育』第52号
- 金田一春彦(1950)「國語動詞の一分類」『言語研究』15
- 武部良明(1953)「複合動詞における補助動詞的要素について」『金田一博士古稀記念言語・民族論叢』三省堂
- 寺村秀夫(1984)『日本語のアスペクトと意味Ⅱ』くろしお出版
- 永井鐵郎(1996)「日本語複合動詞の教育について」『日本語教育』88号、日本語教育學會
- 長嶋善郎(1974)「複合動詞の構造」『日本語講座4 日本語の語彙と表現』大修館書店
- 姫野昌子(1975)「複合動詞『-つく』と『-つける』」『日本語學校論集』2 東京外國語大學外國語學部付屬日本語學校
- _____ (1976)「複合動詞『-あがる』と『-あげる』および下降を表わす複合動詞類」『日本語學校論集』3
- 宮島達夫(1972)『動詞の意味・用法の記述的研究』秀英出版
- 李暲洙(1993)「いわゆる完遂を表わす複合動詞についての研究-韓國語との對照を中心に-」『廣島大學教育學部紀要』42
- _____ (1994)「日・韓兩言語における複合動詞の對照研究」『廣島大學教育學部紀要』43

韓國人日本語學習者の 作文に現われる複合動詞表現の誤謬分析

이 희 정

日本語教育の立場から、複合動詞をいかにどのように取り扱うべきかを念頭において、日・韓両言語における複合動詞の対応パターンを分類し、韓國人日本語學習者の作文の中でどういう問題点があるかを検討してみた。

その結果、韓國語への「動詞+動詞」結合の対応が可能な表現では、

- (1) 二つの動詞が日本語と同順に対応する場合は、他のタイプに比べて誤用例が少なかった。
- (2) 対応が逆順になる場合は、(1)に比べて一段と誤用例が多く出てきた。これらの誤用は、日本語の複合動詞と韓國語の複合動詞との語構成上の違いから生じたものと考えられる。

また、韓國語への「動詞+動詞」結合の対応が不可能な表現では、

- (3) 日本語の「動詞+動詞」結合の複合動詞が韓國語の「漢字語+하다」に対応する場合に、「漢語+する」という表現を使った誤用が多かった。
- (4) 韓國語の「副詞+動詞」に対応する場合は、日本語にも同じく「副詞+動詞」という表現を用いた誤用例が多く出た。

全体的にみて、誤用の原因は韓國人學習者の母語の干渉によって生じたものが多いと言える。